



내년 초파일에는...



김정자 언론인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구어 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올해 들어 세계적 문화 예술 공간으로서의 가능성마저 보여주어주고 있다.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면 공연장 자체의 예술적 향기와 음향 효과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봄 빈 필하모니의 월드컵 경기장 공연 성공으로 경기장은 이제 훌륭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 5월에 열린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국 장에 모 감독이 연출한 이 대형 오페라는 중국 자금성의 두 배가 넘는 세계 최대의 궁궐을 경기장 무대에 설치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세계적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공연물로서도 성공했다. 그 뿐인가. 가을에 있을 초대형 오페라 베르디의 '아이 다'도 벌써부터 음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성공은 국내 음악계도 자국,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나 헨델의 메시아 공연이 거론되기도 한다. 유럽은 물론, 이웃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해마다 합창 교향곡의 합창 인원수를 늘려 몇 천 명 규모의 합창 공연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아니다.

아쉬운 것은 모두가 외국문화의 대형 공연물들이며 관람은 내국인 중심이라는 점이다.

월드컵 경기장 공연물도, 세계인의 관심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한국의 문화예술은 없을까. 그 공연, 또는 행사를 보러 세계인들이 일부러 이 땅을 찾게 하는 그런 것은 없을까. 한국의 장엄한 불교의식과 불교문화 예술을 그 대형 공간에 올려보면 어떨까.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세계인과 함께 하는'이라는 수식이 꼭 붙는다. 내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요즈음 또 한 사교 집단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치러면 곱게 미치자... 그런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종교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다. 바로 당신이 그러한 터무니없는 사교의 광신자가 될 수 있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변하는 세상에서 내일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안고 있지는 않은가? 병이든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여, 이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묘수를 밤낮으로 갈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로또' 열풍을 보라. 당신도 당혹되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편하게 살고픈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사교가 번지는 토양은 바로 거기다. 이 끊임없는 불안과 고통을, 힘 안들이고 한번에 날릴 수 있는 묘수를 갈구하는 마음이 사교의 뿌리이다. 자신의 정당한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차근차근 쌓아가는 지루한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이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불자 세상보기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건강한 종교의 조건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 쉽게 뿌리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더구나 급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즉석의 효험을 보이는 기적 비슷한 체험을 사교가 준다고 하면...

사교에서 별이는 것이 모두 사기라고 말할 수도 없다. 모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사교를 믿고 낫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디 몸과 마음은 돌이 아니기에, 마음이 한군데 모이고 안정되면 기적과도 같은 치유력을 보일 수 있다. 쥐에게 물렸을 때 '만석!'하고 외치면 정말 만석꾼 부자가 된다는 말도 있다. 쥐에게 물리는 팔찌

필 상황에도 '만석!'을 외칠 만큼 부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면 왜 부자가 안 되겠는가?

문제는 사교가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는 병든 정신으로 이끈다는 데 있다. 건강한 종교라는 것은, 일반인의 가장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삼더라도 차츰 보다 높고 열린 경지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위로 열린 통로가 막혀버리면 모든 종교가 사교로 된다. 불교는 업(業)의 사상과 완전한 대자유인 해탈(解脱)의 가르침을 통해, 기독교는 신의 뜻에 따르는 존재가 되라는 가르침을 통해 오히려 저열한 욕망의 추구를 뛰어넘게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교의 끔찍한 범죄를 개탄하기 이전에 종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만 한다.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접수하면서 항상 보다 크고 높은 경지로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걱정이 되는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거대 종교의 말단에는 사교라고까지는 아니라고 위안해서는 안 될, 한 걸음만 나가면 사교로 변질될 독버섯과 같은 요소들이 도처에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차하면 사교로 탈락할 준비가 될 정도로 불안과 고통에 헤매는 사람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근본을 치유하는 종교, 그러한 이들의 고통에 항상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종교, 그러면서 그들을 보다 높고 열린 세계로 이끄는 건강한 종교가 우리 사회를 이끌도록 종교인들이, 종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참여불교의 현실과 전망'

최근 불교시민운동이 양적인 성장을 함에 따라 불교계의 활발한 사회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불교포럼'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동산 불교회관에서 '참여불교의 현실과 전망'이란 주제로 제25차 열린토론회를 갖고 참여불교의 흐름과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는 박광서 교수가, 토론에는 이정호, 이주원 씨가 각각 나섰다. <편집자>

로 제25차 열린토론회를 갖고 참여불교의 흐름과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는 박광서 교수가, 토론에는 이정호, 이주원 씨가 각각 나섰다. <편집자>



▷ 불교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참여불교의 현실과 전망'이란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보살행, 수행 통일된 활발한 참여 요구

■ 박광서 교수(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 이정호 사무처장(인드라망 생명공동체)

■ 이주원 소장(아침을 여는 집)

불교적 사유·철저한 현장주의 전제

무아·연기적 생활 풍토 필요

'경험' 전제없는 참여 관념일 뿐

20세기 아시아에서 등장한 참여불교는 '깨달음'과 '보살행'을 함께 추구하는 대승불교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고 있다. 특히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불교 전통은 생활수행과 사회참여라는 현대적 용어로 새로 정립되었으며, 이를 나뉘어 보거나 단계적으로 보지 않게 했다.

참여불교의 등장과 배경은 20세기의 식민지 해방과 국가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이 바로 참여불교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성 운동세력이 보였던 '선 구조혁명, 후 개인 혁명'이라는 구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참여불교의 정체는 무엇인가. 박 교수는 달마라 라마와 티벳 한 스님의 이념을 빌려와 참여불교를 보살행과 수행의 통일로 정의했다. 또 사회적 실천에 무게를 실고 보살행보다 강조한 민중불교와 실천불교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간의 차이점은 사유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민중불교는 사회구조 개혁에 중심이 있는 반면, 참여불교는 고통의 발인 기존의 사회체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불교는 보살행과 수행의 통일이라고보다 수행, 마음의 평화만 강조하는 불교라고 본다.

이 같이 국제적인 참여불교운동은 사회와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철저히 보편성으로 접근해 해답을 찾으려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또 실제 현장에서 중생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기성교단과 달리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을 개척했다.

이 같은 참여불교의 두 축은 '사회적 고통의 문제'와 '일 속에서의 수행'이다. 첫째,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고통에 참여할지 선택해야 한다. 기존 한국사회의 주된 사회적 고통은 '민중과 계급'에 의한 갈등이었지만 현대사회는 '환경, 생태계, 에너지' 등으로 생존의 문제가 바뀌었다. 즉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 대안이 무아·연기적 견해를 견지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수행론이 정립돼야 한다. 전통 수행전통이 '깨달음을 향한 개인 노력'의 측면이 짙다면, 일속에서의 수행은 일상과 떨어진 '그 무엇'으로 여기지 않고, 수행론의 무게가 짓눌리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적으로 풀이기가 할 구체적인 '삶의 과제'로 여기는 자세와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불교는 우리시대의 고통을 얼마나 힘든지 철저히 현장에서 경험해야 한다. 여전히 현실을 사는 대중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 등은 현실의 고통을 경험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먹고 살며 정의롭지 못한 현실과 투쟁했다. 한국불교는 이 점을 유심히 봐야 한다. 그러나 박 교수가 제시한 참여불교의 두 가지 조건 중, 실제 현장에서 중생 고통 치유하는 '현장주의'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불교는 우리시대의 고통을 경험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운동은 미약하다. 한국불교가 그간 가림막사 위주로, 정작 교육·복지·시민사회운동과 같은 '참여불교'에는 너무도 인색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참여불교의 두 가지 전제, 즉 '불교적 사유'로 세상을 해석하고 해답을 내어놓는 것'과 '철저한 현장주의'란 것대로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출가정신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초발심으로 돌아가 대승불교 정신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불교의 사회적 기능 회복 또한 사부대중 모두가 불법의 대승적 재해석과 보살도를 실천하는 참여불교에서 찾아야 한다.

끝으로, 참여불교 운동이 최근 출범한 조계종 참여종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두 가지다. 현재까지의 가치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것과 새롭게 제시되는 사회적 가치와 불교전통 가치와의 조화라고 본다.

먼저 우리사회의 현실을 말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많은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해야 한다. 말만 해서도 안 된다. 경험해야 한다. 경험이 전제되지 않는 참여는 관념일 뿐이다. 이래야만 참여와 불교의 윤리 실천이 나올 수 있다.

불교수행이 인간 행복감 증진



불교 명상수행이 뇌의 반응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됐다고 영국 '더 타임스'지가 22일 보도했다. 미 위스콘신 주립대 연구팀은 불교신자들의 뇌파를 수년간 조사한 결과 기쁨과 행복, 친착, 만족감 등을 주관하는 왼쪽 뇌의 움직임이 다른 종교의 사람에 비해 이례적으로 활발하며, 불교식 생활습관은 평상시에도 뇌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장군속매

체육대회 하느라 삼보일배 천막칠거?



농림부가 오후 6시부터 산하단체 체육대회를 연다며 삼보일배단에게 천막 칠거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삼보일배 54일째인 20일, 삼보일배단이 과천청사에서 머물기 위해 청사 운동장에 천막을 치자 농림부가 오후 6시부터 산하단체 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칠거를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문제가 커지자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부랴부랴 체육대회를 열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리키나?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값 2,500,000원
기존 혁신판과 교환해 보실분은 값 800,000원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각 순(旬)별 6권 증보발간 안내 「효사육임강의록」 증보판 上下권 무료 교환신청접수 안내

육임래정비법 일러판 값 2,720,000원
일반 판매 개시 (5월 15일부터)

본 「육임강의록」 하(下)권 국수편을 「시간별 래정」과 함께

- 1. 갑자순(甲子旬) 10일치 1권 4. 갑오순(甲午旬) 10일치 1권
2. 갑술순(甲戌旬) 10일치 1권 5. 갑진순(甲辰旬) 10일치 1권
3. 갑신순(甲申旬) 10일치 1권 6. 갑인순(甲寅旬) 10일치 1권

씩 6권으로 나누어 얹게 제본하여 우리 활인현역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수해설과 정답별 류신구분 및 초사와 귀신침범여부 등을 포함한 본 강의록 하(下)권을 그대로 옮겼으며, 크기는 종전의 휴대용과 같은 가로 155mm x 세로 105mm이고 권당 무게 20m/m입니다. 종전의 휴대용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내용면에서도 본서에 비해 훨씬 떨어지므로 이번 이 책은 가히 육임래정의 완성편을 휴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값은 310,000원이고 단, 본 강의록이나 수정보완본 또는 혁신판 등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보내 드리고 있으나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 강의 안내

효사숙 제 6기 강의를 시작 합니다. 오는 6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이고, 오행기초, 기본강의는 3시부터 2시간 사전 교습반에 됩니다. 본 3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분회 회원 자격으로 매주 수요일 5시부터 3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임 고급실기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교재는 효사육임강의록 증보판 上下권 (값 410,000)을 드립니다. 등록비는 1백 5십만원이며 5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단, 활인현역자로서의 그릇 여부를 판단, 선별하여 등록을 받습니다.

- 본 강의록은 공익법인한국육임학회 회원 및 부설 전국 육임학당 교재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증보시킨 것입니다.
■ 기 「강의록」을 구입하신 분은 교환신청하여 새책을 보십시오. 무료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육임강의록 ㉔ 권 증보내용(기존 내용 외)

- 사복법 - 二
● 부정발미 원인(原因)
● 병인(病因) 병증(病症)
● 육임고시(考試) 문제집
● 육임백법(百法)
● 입상사례 모음

◆ 「사복법 一」의 항목(예)

- ① 저안에 물건이 들었는가 비었는가?
② 저안에 든 물체가 죽은것인가 산것인가?
③ 저안에 든 물체가 살았다면 무엇인가?
④ 저안에 든 물건의 품질은 어떤것인가?
⑤ 저안에 든 물건이 새것인가 헌것인가? 뉘한가 흔한가?
⑥ 저안에 든 물건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것인가?
⑦ 저안에 든 물체의 안색은 어떤 색인가?

육임강의록 ㉕ 권 증보내용(기존 내용 외)

- 국수해설
● 길흉성부단정항목 1쪽으로 독립
● 육임판단순서
● 정답별 류신(類神)구분
● 초사(初辭)
● 귀신침범여부

◆ 「사복법 二」는 사람의 신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 ⑧ 저안에 든 물건은 먹을수 있는것인가, 못 먹는것인가?
⑨ 저안에 든 물건의 맛(五味)은 어떤 맛인가?
⑩ 저안에 든 물건(은)은 몇개, 얼마인가?
⑪ 돈이 오른쪽에 들었는가 왼쪽에 들었는가?
⑫ 저안에 든 물건이 계절이 지난것인가 현 계절의 것인가? 다가올 계절의 것인가?
⑬ 저안에 든 물건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쓸 수 없는 것인가?
⑭ 저안에 든 물체의 속 색깔과 겉 색깔은 어떤색인가?
⑮ 저안에 든 물건이 한가지 인가 섞여 있는가?

▶ 주문 전화 02) 993-8680 ● 본 휴대용 값 310,000원 ● 본 강의록 상·하 값 410,000원 ● 육임래정비법 CD 2,000,000원 ● 육임신수비결 300,000원 ● 육임강의 비디오 900,000원
▶ 현금입금 후 전화요망 / 2일 이내 도착 배본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